DAY 40 · 4부 조심할 것

어디까지 내가 했고 어디부터 AI가 했지 — AI가 만들었다고 밝히기

하루 5분 AI 수업 · 2026년 10월 16일

밝히는 건 자수가 아니라 이름표야. 어느 조각을 도움받았는지 한 줄이면 충분해.

한 줄로 말하면

1. AI를 썼다고 밝히는 건 자수가 아니야. **어디까지가 내 솜씨인지 알려 주는 표시**야 — 안 밝히면 잘한 부분까지 같이 의심받거든.

2. 밝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워. 과제를 **주제 정하기·자료 찾기·초안 쓰기·다듬기·사실 확인 다섯 조각으로 쪼개고, 조각마다 누가 했는지 한 줄로 적으면** 끝이야.

3. 그림이나 영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표시를 넣기도 해. 구글은 자기 모델이 만든 결과물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넣고, 유럽연합은 **AI가 만든 것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를 붙이게 하는 규칙**을 법에 넣었어(언제부터 적용할지는 조정 중이야).

안 밝히면 / 밝히면

안 밝히면

· 내가 잘한 부분도 의심받아
· 선생님이 어디를 도와줄지 모름
· 나중에 알려지면 전부 거짓이 됨

→

밝히면

· 내가 한 부분이 또렷해져
· 고쳐 줄 자리를 정확히 찾아 줌
· 다음에도 떳떳하게 쓸 수 있어

밝히는 한 줄은 점수를 깎는 고백이 아니라, 내 몫을 지키는 울타리야.

핵심: 밝히면 내 몫이 또렷해지고, 안 밝히면 내 몫까지 흐려진다

과제를 조각으로 쪼개고 이름표 붙이기

통째로 맡겼을 때

다섯 조각 중 넷이 AI

주제 정하기 | 자료 찾기 | 초안 쓰기 | 다듬기 | 사실 확인

밝힐 게 너무 많아서 사실상 '내가 한 건 없음'이야. 게다가 사실 확인을 아무도 안 했다는 게 제일 위험해.

같이 했을 때

AI는 한 조각만

주제 정하기 | 자료 찾기 | 초안 쓰기 | 다듬기 | 사실 확인

첫 문단이 안 풀려서 초안만 도움을 받았어. 이럴 땐 '첫 문단 초안은 AI로 만들고 내가 다시 썼다' 한 줄이면 충분해.

내가 다 했을 때

맞춤법 검사만 도구로

주제 정하기 | 자료 찾기 | 초안 쓰기 | 다듬기 | 사실 확인

맞춤법 검사 같은 건 예전부터 쓰던 도구라 보통 안 밝혀도 돼. 내용을 만든 게 아니면 조각으로 세지 않아.

같은 독서감상문 과제를 세 가지 방식으로 했을 때를 비교해 봐. 주황은 AI가 한 조각, 초록은 내가 한 조각, 흐린 건 아...

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· next-token.net/learn/day-40/

확인해보기

세 문제만 풀어 보자

Q1 AI를 썼다고 밝히는 가장 큰 이유는?

① 내가 한 부분을 또렷하게 지키려고
② 벌을 덜 받으려고
③ AI가 요구해서
④ 글자 수를 채우려고

Q2 '밝히기'를 쉽게 하는 방법으로 오늘 배운 건?

① 맨 앞에 'AI 씀'이라고만 적기
② 과제를 조각으로 쪼개 조각마다 적기
③ 글자 색을 바꾸기
④ 분량을 줄이기

Q3 그림에 넣는 보이지 않는 표시를 뭐라고 해?

① 즐겨찾기
② 비밀번호
③ 워터마크
④ 캡처

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① 안 밝히면 잘한 부분까지 같이 의심받아. 밝히는 한 줄은 고백이 아니라 내 몫을 지키는 울타리야.

Q2

② 주제·자료·초안·다듬기·사실 확인으로 쪼개면, 어느 조각을 도움받았는지 한 줄로 정확히 적을 수 있어.

Q3

③ 사람 눈엔 안 보이지만 기계는 읽을 수 있는 표시야. 유럽연합도 이런 표시를 붙이도록 하는 규칙을 준비하고 있어.

밝히는 건 자수가 아니라 이름표야.
어느 조각을 도움받았는지 한 줄이면 충분해.



내일은 숙제와 AI, 어디까지 — 통째로 시키기와 같이 하기, 기준은 딱 하나야.